

문 의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과 장 현성훈	042-481-546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주무관 박현석	042-481-8238
		과 장 정석진	044-203-5880
		사무관 이범천	044-203-5881
		2015년 1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월 29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전년보다 더욱 강화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비율 큰 폭(10.3%p)으로 증가 〕

- 특허청,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 조사는 '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한 국내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중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모집단 : 20,799개(기업 20,569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30개)

* 표 본 : 4,055개(기업 3,825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30개)
- 이번 조사결과, 2014년에 지식재산 담당조직 등 관련 인프라의 강화 및 직무발명보상규정 보유·활용 증가, 선행특허(기술) 조사 확대, 해외 지재권 출원·등록 활동 증가 등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전년도 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담당조직 보유 증가)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13년 59.0%에서 2014년에는 69.3%로, 전년도 대비 큰 폭(+10.3%p)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허부 등 독립적인 전담 부서 형태로 담당조직을 보유한 비율은 2013년 5.3%에서 2014년 4.7%로 다소 감소($\Delta 0.6\%p$) 하였지만, 총무부 등 겸임 부서 형태로 담당조직을 보유한 비율은 2013년 53.7%에서 2014년 64.6%로 큰 폭(+10.9%p)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 특히 대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이 2013년 73.2%에서 2014년 85.6%로 전년도 대비 12.4%p 증가하였으며, 독립전담 부서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2013년 4.4%에서 2014년 9.7%로 전년도 대비 5.3%p 높게 나타났다.

○ 최근 지식재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지재권 창출활동 강화)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및 활용, 선행특허(기술)조사 등 지식재산 창출단계에서의 활동 역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013년 35.1%에서 2014년 41.7%로 6.6%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전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기술)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도 2013년 72.9%에서 2014년 74.2%로 1.3%p 증가하였다.

○ 이는,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 (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기업의 해외출원(PCT 출원 포함) 및 해외등록 등 해외에서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PCT 출원을 포함하여 해외로 특허출원한 기업은 2013년 16.6%에서 2014년 17.2%로 0.6%p 증가하였고, 특허권을 해외에 등록하였다고 응답한 기업도 2013년 6.3%에서 2014년 9.1%로 2.8%p 증가하였다.
 - 이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현지 지재권 확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금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현황, 특허권의 활용현황, 해외 지재권 확보 현황 등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특허청은 본 보고서(총 157페이지)를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및 특징

1.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14. 7. 16. ~ '14. 10. 14. (약 3개월)

□ 조사 내용 : 기업과 대학·공공연으로 구분하여 지식재산 인프라, 창출 및 활용, 보호 등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

< 지식재산활동 조사항목 구성 >

구분	조사항목
▶ 지식재산활동 인프라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전담인력 현황, 인건비/교육비 현황 등
▶ 특허기반의 지식재산활동	선행특허(기술) 조사 활동, 직무발명보상 보유 현황 등
▶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특허권 활용 및 사업화 현황, 지재산 매각/이전 현황 등
▶ 지식재산 보호	출원 비율, 지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 등
▶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	지재산 침해 경험 기업 비율, 대응 여부 등

□ 조사 표본 설계

○ 모집단 설계 : 2014년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2건 이상('11~'12년) 출원 및 1건 이상('09~'13) 등록한 20,799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

(단위: 개)

	모집단 크기	기업	대학 및 공공(연)
2007년	10,202	10,050	152
2008년	11,470	11,292	178
2009년	11,987	11,792	195
2010년	13,392	13,165	227
2011년	17,440	17,220	220
2012년	18,656	18,418	238
2013년	20,795	20,566	229
2014년	20,799	20,569	230

○ 표본집단 설계: 4,055개(기업 3,825개, 대학·공공연 230개)

- (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공통)와 업종(기업)을 기준으로 26개 집단으로 계층화하여 무작위 추출

▪ (전수조사) 기준연도 연평균 출원 10건 이상 또는 5년간 등록 100건 이상

▪ (표본조사) 기준연도 연평균 출원 10건 미만 그리고 5년간 등록 100건 미만

- (대학·공공연) 출원 및 등록건수에 관계없이 전수조사 실시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2.75

□ 응답률 : 46.7% (기업 43.4%, 대학·공공(연) 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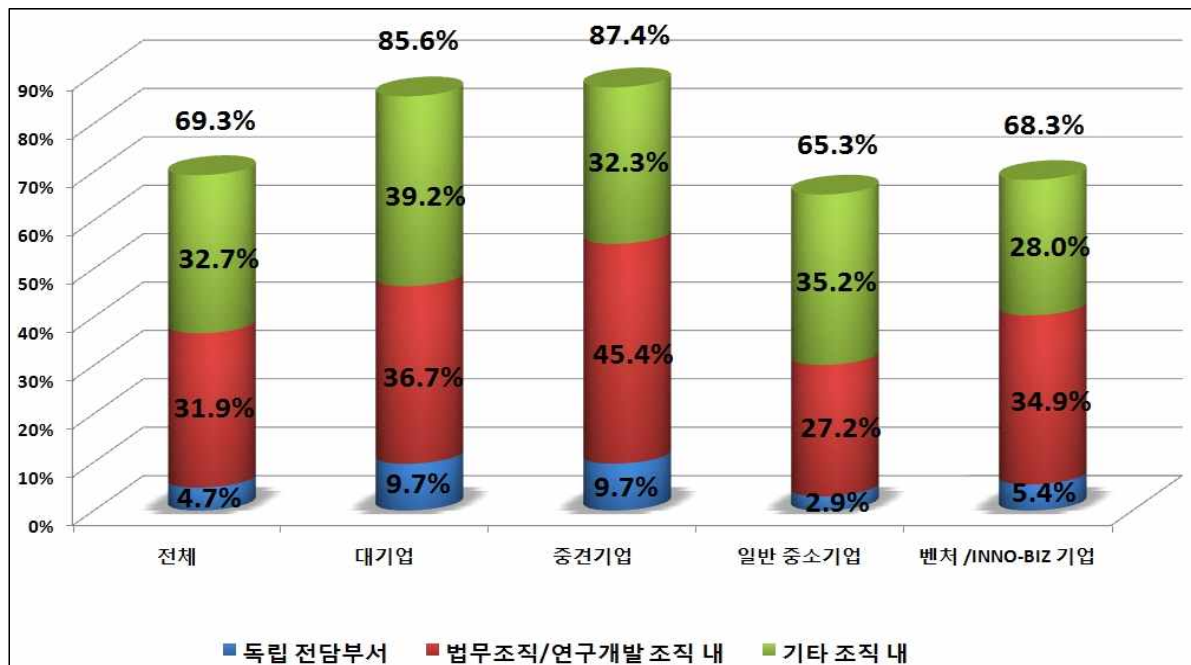
2. 2014년도 주요 조사결과 및 특징

가. 기업의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주요결과

□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69.3%로 전년대비 10.3%p 증가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기업 비율: 59.0%('13년) → 69.3%('14년)
- 독립전담 부서의 형태로 담당조직을 보유한 비율은 4.7%로 전년 대비 0.6%p 감소
※ 독립전담 부서 형태로 보유한 비율: 5.3%('13년) → 4.7%('14년)
- 겸임 부서의 형태로 담당조직을 보유한 비율은 64.6%로 전년 대비 10.9%p 증가
※ 겸임 부서 형태로 보유한 비율: 53.7%('13년) → 64.6%('14년)
- 대기업의 경우, 독립전담 부서의 형태로 담당조직을 보유한 비율은 9.7%로 전년 대비 5.3%p 증가
※ 독립전담 부서 형태로 보유한 비율(대기업) : 4.4%('13년) → 9.7%('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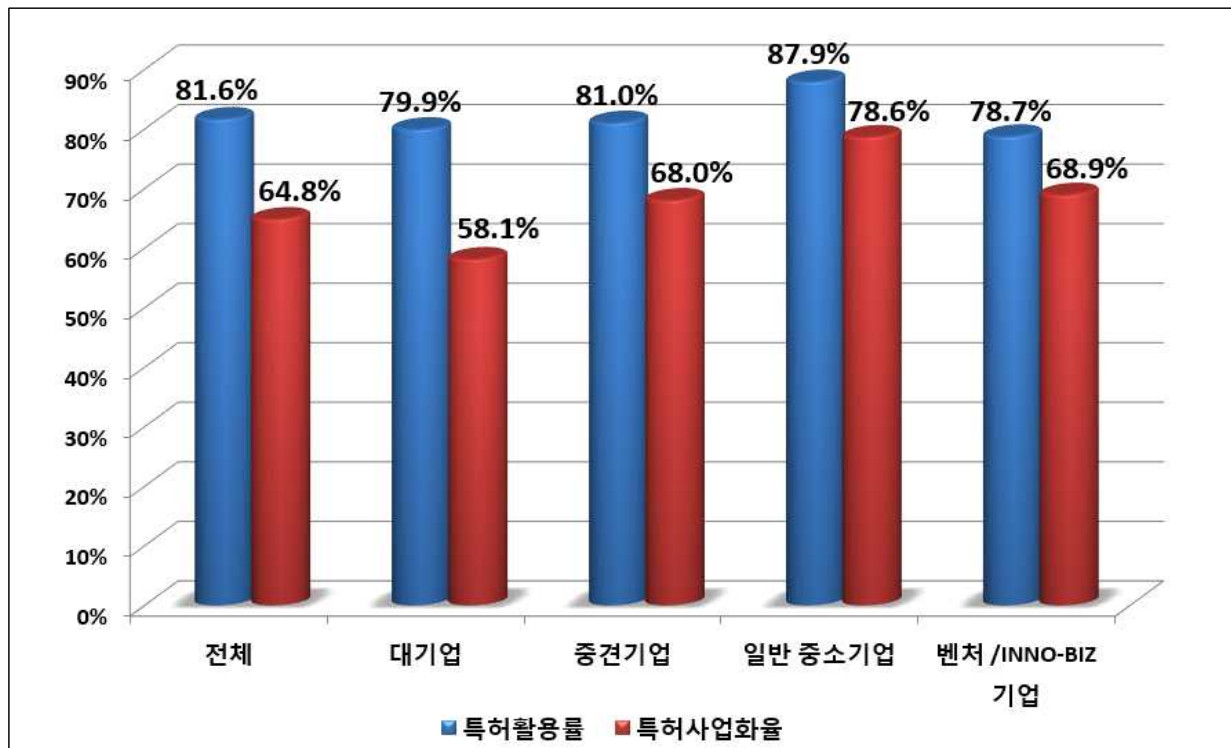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기업) >

□ 지식재산 활용 현황

- 전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 중 현재 활용되고 있는 비율은 81.6%로 전년 대비 5.3%p 증가
- 전체 보유 특허 중 사업화 비율은 64.8%로 전년대비 7.3%p 증가

【특허 활용(①+②+③) 및 특허 사업화(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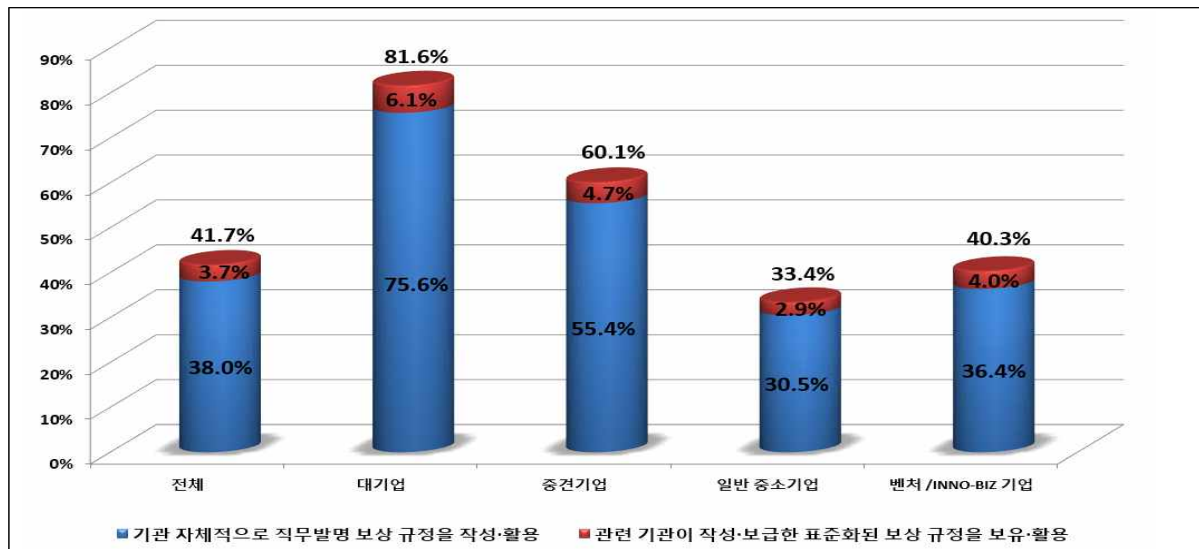
- ①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개선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
- ②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타 기관에 이전한 경우
- ③ 생산 활동이나 기술이전 등에는 직접 활용하지 않지만 전략적 목적(핵심기술의 방어, 특허 소송 방지, 국가 차원의 필요성 등)으로 보유·활용하는 경우



< 특허권의 활용률 및 사업화율 (기업) >

□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전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41.7%로, 전년 대비 6.6%p 증가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81.6%)이 가장 많이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견기업(60.1%), 벤처/INNO-Biz(40.3%), 중소기업(33.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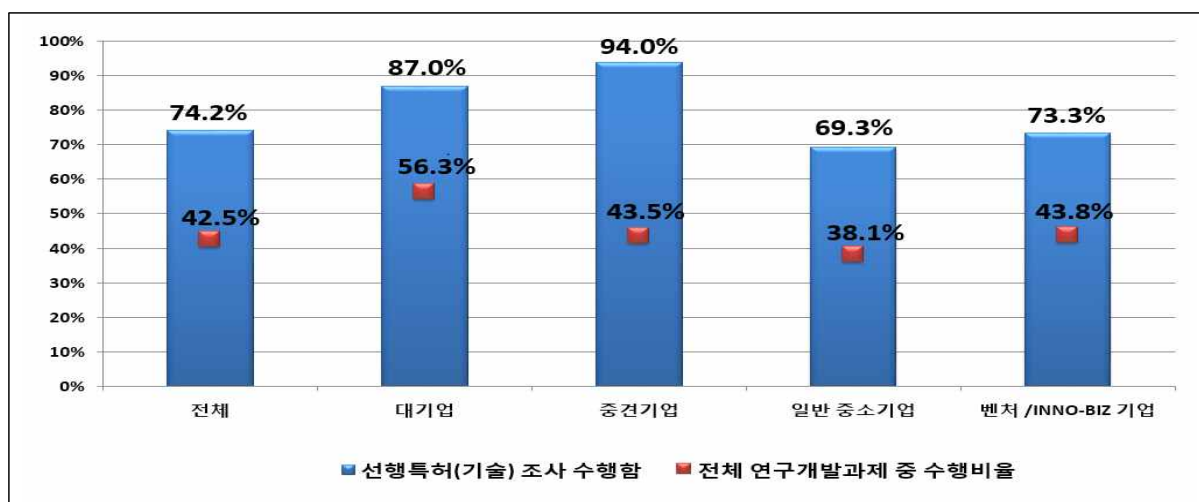


<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비율 (기업) >

- (선행특허(기술) 조사) 전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기술)조사* 등 특허(기술) 정보를 조사하는 기업의 비율은 74.2%로 전년 대비 1.3%p 증가

*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 활동에 앞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또는 해당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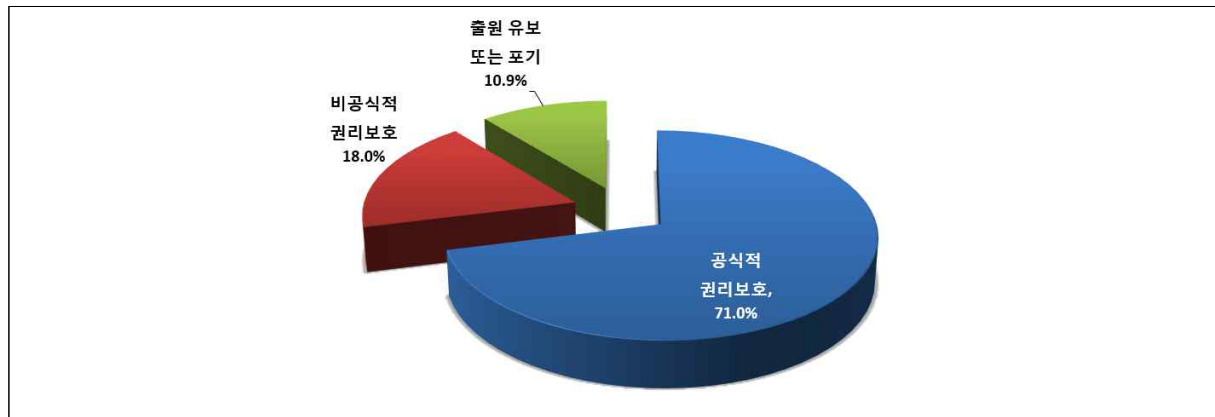
- 중견기업의 경우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비율이 94.0%로 대부분 선행 특허(기술)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69.3%가 선행특허(기술)조사를 수행



<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비율 (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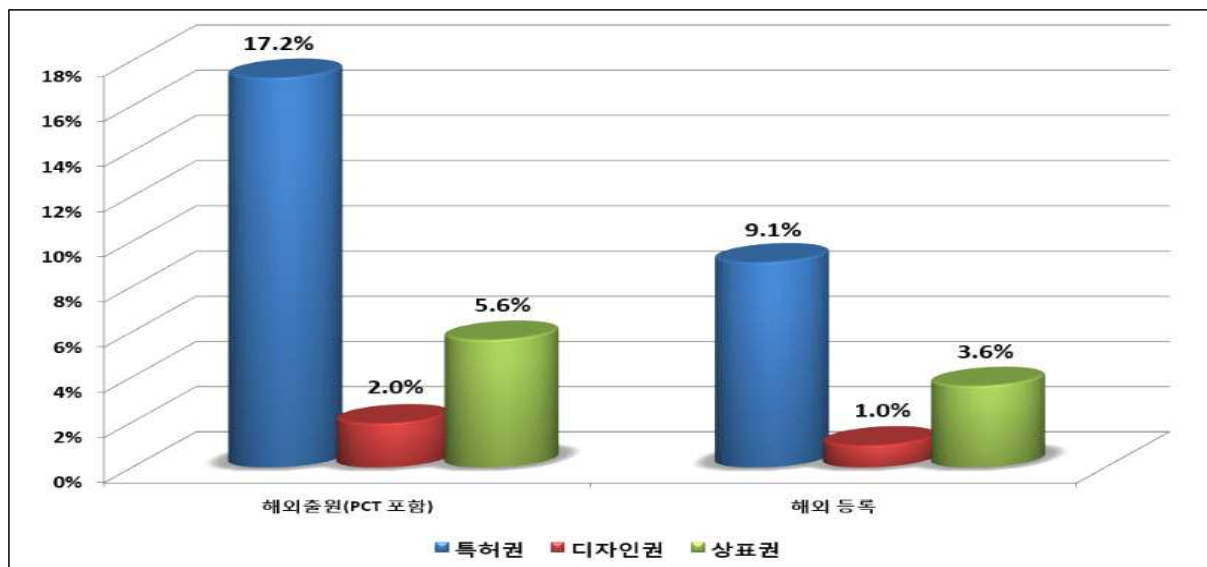
□ 지식재산 보호 활동 현황

- 기업의 발명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산업재산권 출원 등)를 통해 권리를 보호한 비율은 71.0%로 전년대비 5.9%p 감소
- 반면, 비공식적 절차(영업 비밀로 유지 등)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거나, 기술성·경제성 부족 등으로 출원을 유보 또는 포기하는 경우는 증가
 - ※ 비공식 절차를 통한 보호 비율 : 13.8%('13년) → 18.0%('14년)
 - ※ 출원 유보·포기 비율 : 9.2%('13년) → 10.9%('14년)



<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 (기업) >

- PCT를 포함한 해외에 출원한 기업의 비율은 17.2%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해외에 등록한 기업의 비율은 9.1%로 전년대비 2.8%p 증가
-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해외에 출원한 비율은 각각 2.0%, 5.6%로 전년대비 증가
 - ※ 디자인권 : 1.0%('13년) → 2.0%('14년), 상표권 : 4.0%('13년) → 5.6%('14년)
-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해외에 등록한 비율은 각각 1.0%, 3.6%로 전년대비 증가
 - ※ 디자인권 : 0.6%('13년) → 1.0%('14년), 상표권 : 2.9%('13년) → 3.6%('14년)



< 해외 출원(PCT 출원 포함) 및 해외 등록 비율 (기업) >

나. 대학·공공연구기관의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주요결과

□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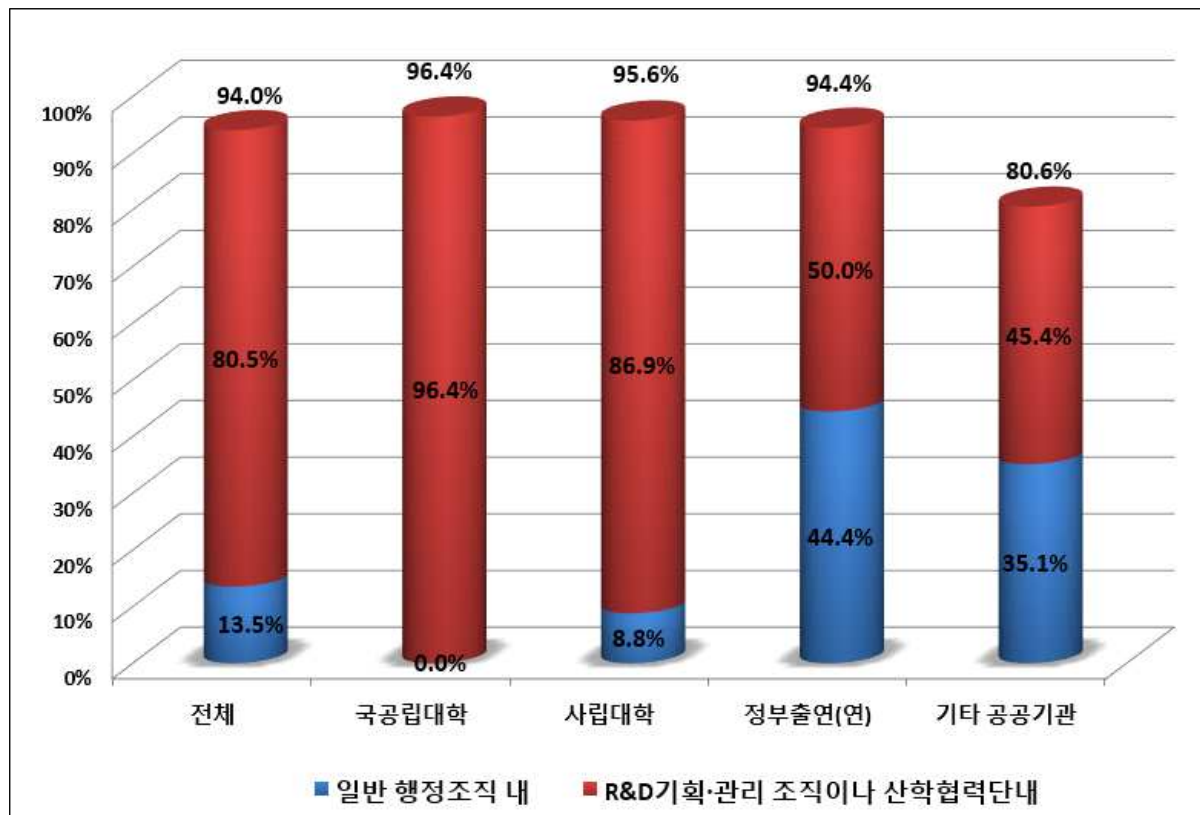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94.0%로 전년대비 2.7%p 감소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기관 비율: 96.7%('13년) → 94.0%('14년)

- 기관 유형별로 국공립대학이 9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대학, 정부출연(연), 기타 공공기관의 순

※ 기관 유형별 담당조직 보유 비율: 96.4%(국공립대학) > 95.6%(사립대학) > 94.4%(정부출연(연)) > 80.6%(기타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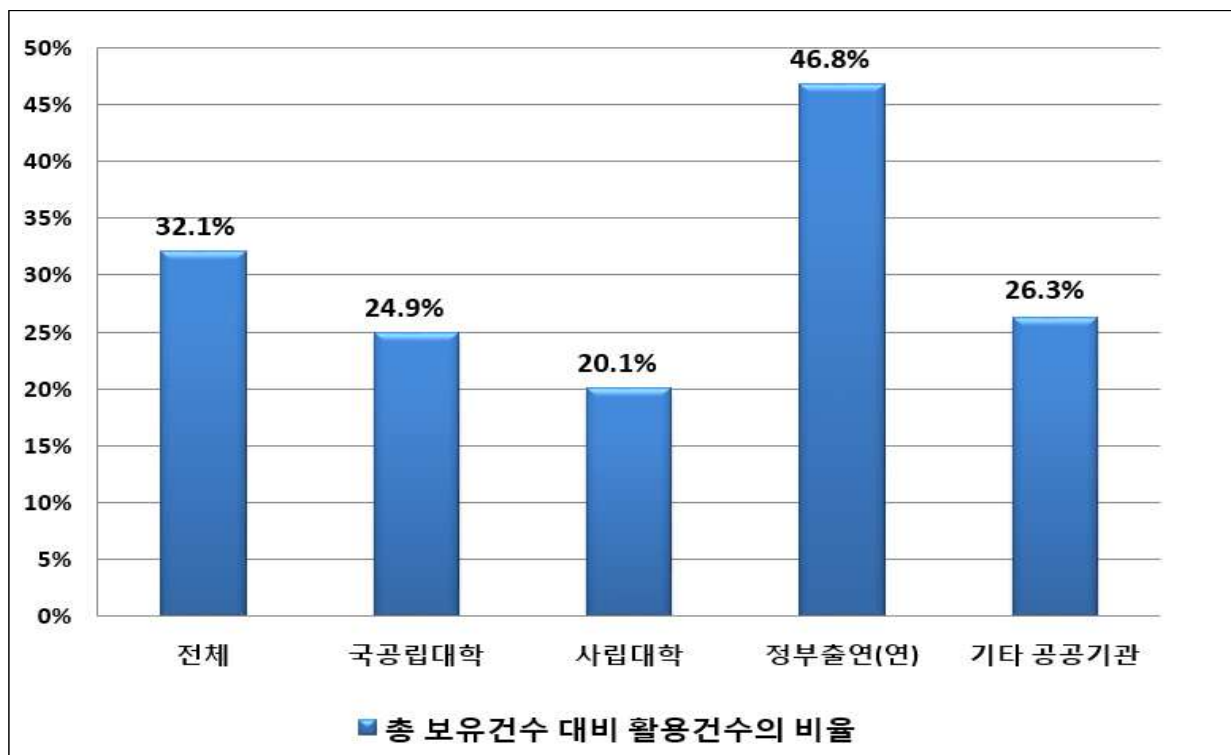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

□ 지식재산 활용 현황

- 전체 대학·공공연구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 중 현재 활용되고 있는 비율은 32.1%로 전년 대비 2.7%p 증가
- 대학·공공연구의 특허 미활용 사유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수요기관 발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66.5%)가 많아 특허 활용기관 매칭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특허 활용(①+②+③)】

- ①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개선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
 - ②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타 기관에 이전한 경우
 - ③ 생산 활동이나 기술이전 등에는 직접 활용하지 않지만 전략적 목적(핵심기술의 방어, 특허 소송 방지, 국가 차원의 필요성 등)으로 보유·활용하는 경우
- > 기업의 경우에는 ③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활용률과 사업화율을 구분하지만,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활용률과 사업화율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



< 특허권의 활용률 및 사업화율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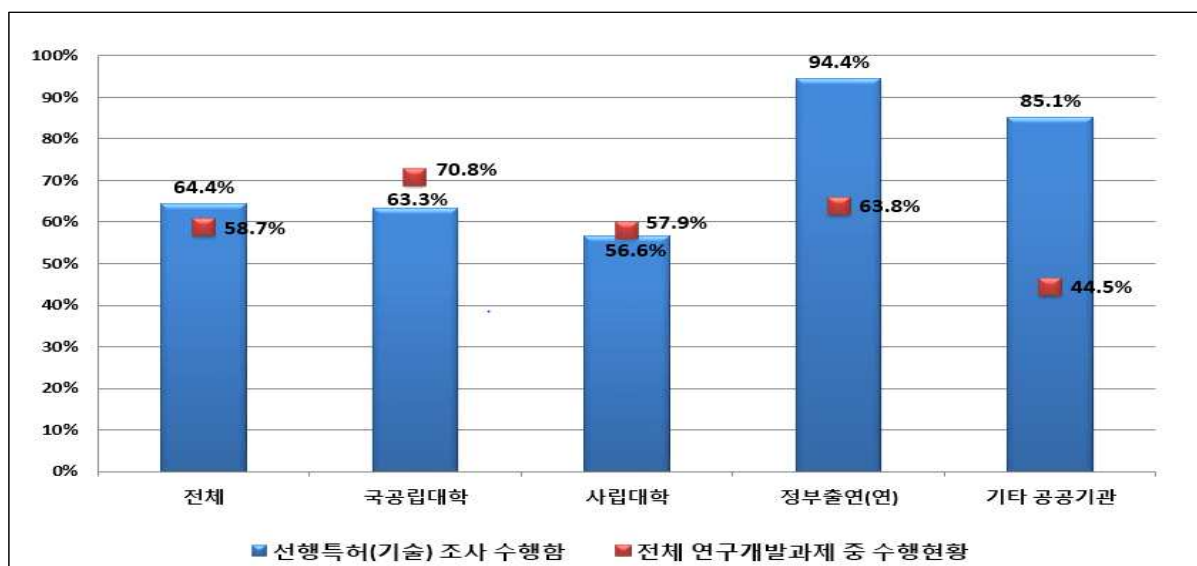
□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전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기관의 비율은 93.5%로 전년 대비 1.6%p 감소
 - 국공립 대학 및 정부출연(연)은 모든 기관이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립 대학(91.1%) 및 기타 공공기관(92.6%)도 대부분 보유



<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비율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

- (선행특허(기술) 조사) 전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기술) 조사 등 특허(기술) 정보를 조사하는 기업의 비율은 64.4%로 전년 대비 2.8%p 증가
 - 정부출연(연)(94.4%)과 기타 공공기관(85.1%)이 선행특허(기술) 조사를 활발하게 수행하여 전체 평균(64.4%) 대비 수행기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비율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

□ 지식재산 보호 활동 현황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발명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보호한 비율은 94.7% (전년대비 +0.1%p)로 전년과 유사
- 비공식적인 절차(영업 비밀로 유지 등)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비율은 0.2%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대부분의 권리를 출원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보호하고 있음



<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